

遣日本渤海使의 交流 品目に 나타난 服飾 연구

-일본 사료를 중심으로-

전 현 실*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stume through the Item Exchange of Parhae's Envoys for Ancient Japan

-focused on the historical records of Japan-

Hyun-Sil Jeon* · Soon-Che Kang**

Docto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2003. 5. 12 투고)

ABSTRACT

Parhae and ancient Japan officially exchanged at 34 times during the period from AD.727 to AD.920. The envoys of each nation also sent the other nation with some items. The names of the items are identified by the historical records; those which Parhae presented to ancient Japan were leader shoes, which is called AmMoHwa(暗摸靴), belt(帶), various leaders and those which ancient Japan presented to Parhae were formal uniforms[冠服], various textiles, coronet, shoes. We can recognize that the leader items of Parhae are frequently recorded as the gift to ancient Japan because they were the main manufactures in Parhae at that time.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ancient Japan gave the Parhae's envoys a high rank, five-grade(5位) and noble costumes like JinKaeEui(襟揩衣) and so on were well-matched with their high rank. While being official exchanges, it is supposed that there were lots of other unofficial exchanges. Historically, in Japan, the time came under Nara(奈良) era(AD.719~AD.794) and the beginning of PyungAn(平安) era(AD.794~AD.1192) and in the same way in Parhae, King Mun(737~793) reign. One of the features at that time is that Tang's culture was introduced to ancient Japan positively. Since Nara era strongly accepted Tang's culture, I assume that Nara costumes were affected by Tang's therefore they are the same as Tang's. In the same way, Parhae's costumes are the same as Tang's, too.

The point is, it is expected that the costumes of Parhae which were exchanged with ancient Japan are similar to those of Nara by the medium of Tang's costumes.

Key words : Palhae(渤海), Ancient Japan(古代 日本), Historical Record(史料), Exchanged Item(交流 品目), Costume(服飾), Tang's Culture(唐 文化)

I. 서론

발해는 698년 고구려 유민 大祚榮(高王, 698~719)이 건국하여 15대 諱諤(906?~926)¹⁾에 이르기까지 229년간 존속하였던 국가이다. 발해의 국가 정체성과 주민 구성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인식차이가 있으나²⁾, 일반적으로는 북쪽의 옛 고구려의 영토에서 高句麗 文化를 바탕으로³⁾ ‘海東盛國’이라 불릴 만큼 번성하여 7세기 말~10세기 전반의 한반도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시기는 남쪽의 新羅⁴⁾와 함께 南北國時代로 언급되기도 한다.

발해는 唐, 五代, 日本, 新羅 등 주변 국가들과 政治·文化·經濟的 交流 關係를 유지했었다. 그중 渤海와 古代 日本과의 관계를 일본 사료 <續日本紀>, <日本後紀>, <續日本後紀>, <日本三代實錄>, <類聚國史>, <扶桑略記>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발해는 727년부터 약 200년간 공식적으로 34회에 걸친 사신 교류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발해에 13회에 걸친 사신 파견 내용이 확인되며⁶⁾, 또한 사신 왕래시 兩國 間에 주고받았던 다양한 物目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발해와 古代 日本과의 교류 관계에서 나타나는 衣料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상세히 보고되어 있으며⁷⁾, 渤海 服飾에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주로 1980년에 발견된 貞孝公主墓 壁畫나 이와 관련된 中國 文獻을 중심으로 한 唐 服飾과의 관계에서 연구하여 왔다⁸⁾.

한편 渤海가 日本에 공식적으로 使臣을 파견한 727년부터 919년 시기의 일본은 奈良時代(719~794)부터 平安時代 前期(794~10세기)까지로, 唐 文化의 수입에 주력하던 때이다. 발해 또한 2대 武王 大武藝(719~737)대인 727년부터 唐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특히 3대 文王 大欽茂(737~793)대에는 唐 文化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중앙통치기구, 지방 제도, 왕실 제도와 같은 전반적인 제도가 당의 영향 하에 정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遣日本渤海使가 일본 조정에 증정했던 衣類 品目과 일본 조정으로부터 받

았던 의류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당시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고 간접적으로는 발해복식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시기 渤海와 日本의 관인 복식에는 공통적으로 唐의 요소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발해 사신에게 주어진 의복류는 渤海와 동시대인 奈良朝와 平安朝 前期의 복식과 유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평안시대 전기까지는 당의 영향으로 체계화된 나라시대의 복식체계와 유사하므로, 이들 의복류에 대한 고찰은 나라시대 복식체계를 중심으로 일본 사료와 각종 관련 문헌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대 일본의 官位와 位階를 통해 일본 천황이 발해 사신에게 내린 품계를 역추적하면 언급된 의복류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일본이 발해 사신들에게 내린 복식 연구를 통하여 발해복식의 일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渤海의 對日外交

1. 발해의 대일외교 성격

발해와 고대 일본은 약 200년 동안 발해에서 34회(비공식 3회), 일본으로부터 13회(비공식 2회)의 사신 왕래가 확인되고 있다.<표 1> 참조

727년부터 발해가 일본에 파견했던 사신의 성격에 대하여, 초기 5차까지는 武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762년 6차부터는 文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데에 학자간에 異見이 없으나,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견해를 달리한다. 최재석⁹⁾은 일본에 간 초기(1~5차)의 발해사가 모두 武官이라는 것은 발해가 일본을 복속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후 6차(762)부터는 발해의 일본 復屬이 정착되어 무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을 시기에 이르렀으므로 文官을 파견하였다고 했다. 반면에 李成市¹⁰⁾와 石井正敏¹¹⁾는 전기인 727년~759년(1~5차)

<표 1> 발해와 일본의 사신 왕래¹²⁾(괄호 안은 비공식)

국가	次數	도착시기	출국시기	도착지	使臣名
渤海 ↓ 日本 ↓ 渤海	1	727.9.21	728.6.5	出羽	高仁義, 高齊德
	2	739.7.13	740.2.2	出羽	胥要德, 己珍蒙
	(1)	746	746	出羽	渤海人, 鐵利人
	3	753.9.24	754.6.8	佐渡嶋	慕施蒙
	4	758.9.18	759.2.16	越前	楊承慶, 楊泰師
	5	759.10.18	760.2.20	對馬	高南申
	6	762.10.1	763.2.20	出羽	王新福
	7	771.6.27	772.2.29	出羽	壹萬福
	8	773.6.12	774.6.24	能登	烏須弗
	9	776.12.22	777.5.23	越前, 加賀	史都蒙
	10	778.9.21	779.2.2	越前	張仙壽
	11	779.9.14	779.12.22	出羽	高沖弼
	12	786.9.18	787.2.19	出羽	李元泰
	13	795.11.3	796.5.17	出羽, 志理, 波村	呂定琳
	14	798.12.27	799.4.15	隱岐	大昌泰
	15	809.10.1	810.4.8		高南容
	16	810.9.29	811.1.22		高南容
	17	814.9.30	816.5.2	出雲	王孝廉
	18	817	818		慕感德
	19	819.11.20	820.1.22		李承英
	20	821.11.13	822.1.21		王文矩
	21	823.11.22	824.5.20	加賀	高貞泰
	22	825.12.3	826.5.15	隱岐	高承祖
	23	828.1.17	829	但馬	王文矩
	24	841.12.22	842.4.12	長門	賀福延
	25	848.12.30	849.5.12	能登	王文矩
	26	859.1.22	859.6.23	能登	烏孝慎
	27	861.1.20	861.5.26	出雲	李居正
	28	871.12.11	872.5.25	加賀	楊成規
	(2)	873.3.11	873.6.25		崔宗佐
	29	876.12.26	877.7	出雲	楊中遠
	30	882.11.27	883.5.12	加賀	裴頌
	31	892.1.8	892.6.29	出雲	王龜謀
	32	894.12.29	895.5.16	伯耆	裴瑒
33	908.1.8	908.6	伯耆	裴瑒	
34	919.11.18	920.6	若狹	裴瑒	
(3)	929.12.24	930.6.2	丹後國	裴瑒(東丹國使)	
국가	次數	출국시기	귀국시기		使臣名
日本 ↓ 渤海 ↓ 日本	1	728.6.5	730.8.29		引田虫麻呂(送渤海客使)
	2	740.4.20	740.10.5		大伴犬養(遣渤海使)
	3	758.2.10	758.9.18		小野田守(遣渤海使, 專使)
	(1)	759.1.30	759.10.18		高元度
	4	760.2.20	760.11.11		陽候玲瑒(送高南申使)
	5	762.3.28	762.10.1		高麗大山(遣高麗使, 專使)
	6	763.2.20	763.10.6		多治比小耳(送高麗人使)
	7	772.2.29	773.10.13		武生鳥守(送壹萬福使)
	8	777.5.23	778.9.21		高麗廣道(遣高麗使)
	9	779.2.2			大網廣道(送高麗客使)
	(2)	787.2.19			
	10	796.5.17	796.10.2		御長廣岳(送渤海客使)
	11	798.5.19	798.12.27		內藏賀茂麻呂(遣渤海使, 專使)
12	799.4.15	799.9.20		滋野船白(送使)	
13	811.1.22	811.10.2		林東人(送渤海客使)	

에 걸쳐서 武官을 파견한 것은 발해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자국의 정치적 이해 때문이었고, 이후 762년(6차)부터는 파견 사절의 주요 목적이 '정치'에서 '경제'로 변화되고 양국이 경제적 교류 관계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이 시기에는 文官이 파견되었다고 하여, 발해와 일본 사이의 교류 성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이옥¹³⁾은 무관 중심에서 문관중심 체제로 바뀐 변화의 시기가 3대 文王(737~793.3)이 中京에서 上京으로 遷都한 시기와 부합되는 점에 착안하여 이는 官制 개편과 정치 기구의 정비를 단행했던 발해의 내부적인 변화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후기 발해 사신들의 일본 파견 목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상관없이 초기부터 사신 파견이 끝나는 10세기 전반까지 兩國 間에는 국가의 특산품 교환이 있었으므로, 사신 파견이 있었던 이 시기에는 經濟的 交流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酒寄雅志¹⁴⁾은 渤海使가 810년대부터 820년대에 빈번하게 일본으로 파견된 데 대해, “이때의 일본은 嵯峨天皇(809~822)과 淳和天皇(823~832)의 시대로, ‘律令制의 再建’이 가장 큰 정치적 과제였으며, 특히 唐風 文化를 따르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唐文物도 적극적으로 수입하였으며, 唐의 制度에 따라 818년(弘仁 9) 3월에 朝會의 禮, 服裝 등과 平安宮의 閣과 모든 門의 명칭, 官人의 位記(벼슬의 품계가 적힌 문서)의 형식을 정했다. 그러므로 당시 빈번하게 일본으로 오는 발해사를 통해 당의 다양한 문물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여 渤海使를 통한 당 문물의 수입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일본에 도착한 발해 사신들은 국가적 의례인 賓禮¹⁵⁾에 따라 賓客으로 대우받았다. <日本三代實錄>의 기록¹⁶⁾을 보면, 882년 11월 加賀에 도착한 발해 사신 表類 등 150명을 맞이 위해서 存問渤海客使와 通事 등을 임명하여 파견하고, 平安京의 鴻臚館에 안치하였다. 그 후 연회를 베풀고 작위, 儀式과 祿物을 하사하였고, 귀국을 위해 勅使를 파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발해 사신들을 지칭하는 蕃客과의 공식적인 교역에 관련된 내용을 <延喜式>¹⁷⁾에서 보면 “번객의 내조에 응해서 交關에 임하려면,

丞·錄·史·生(大藏省의 官人)이 藏部·價長 등을 이끌고 客館에 나아가 內藏寮와 함께 해야 한다.”하였으므로, 발해 사신들이 평안경에 들어오면 객관인 홍려관에 안치되고, 번객에 대한 빈례의 과정에서 대장성이나 내장료의 주도 하에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처럼 원래 발해사에 의한 경제적 교역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나, 귀족들의 ‘遠物’에 대한 선호는 대단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발해사가 가져온 물품들을 경쟁적으로 구입하려는 일반 사람들로 인하여 발해사가 도착한 來着地에서는 민간교역도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는 일본 정부가 ‘遠物’에 대한 경쟁적인 구입 사태의 악화를 막는 차원에서 824년 발해사에게 ‘12년에 한번씩 조공할 것(一紀一貢)’이라는 제한 규정을 통보하였고, 이후 발해사의 渡日 경향은 감소하였으나 귀족의 遠物 선호는 줄어들지 않았다¹⁹⁾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日本三代實錄>에는 871년 12월 加賀에 도착한 발해 사신이 평안경에서 교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貞觀 14(872)년 5월 20일 內藏寮와 발해 사절간에 貨物을 교역했다. 5월 21일 京師人에게 발해 사절과의 교역을 허가해 주었다. 5월 22일에 諸市人과 발해 사절 사이의 사적인 교역을 허가했는데, 이날 발해 사신들은 관전 40만을 얻었다”²⁰⁾는 기록을 통해 발해와 일본간에는 관료 기구를 매개로 한 교역 외에 평안경 내에서 특별히 허가된 사적 형태의 교역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 또 <類聚三代格>(長保 4년~寬治 3년, 1002~1089)에도 “蕃客이 가져온 물품을 우리와 交關하는 것은 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遠物을 좋아해서 앞다투어 무역한다. 마땅히 엄하게 금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백성은 杖 100에 처하고.... 중벌에 처한다”²²⁾고 했던 것을 보면,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외래품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내린 금제령으로, 이로써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는 전술한 사신 왕래를 통한 公式的 통로 외에도 일반 백성까지 교역에 참여한 민간 교역도 여전히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에 기록된 品目과 數量 외에도 양국 간에는 다양한 품목의 물품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

으로 사료된다.

2. 발해의 대일 교통로

<新唐書>²³⁾와 <渤海考>²⁴⁾에는 발해의 교통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으로 통하는 '朝貢道', '營州道', 거란으로 통하는 '契丹道', 신라로 통하는 '新羅道', 일본으로 통하는 '日本道'가 있었다. 이 중 일본도는 발해 5경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도가 자리잡았던 상경 용천부를 기점으로 하여 동해에 근접해 있는 동경 용원부를 거치는 陸路와 海路가 연결된 교통로이다. 그런데, 海路를 통해 이동하는 古代의 항해는 季節風과 海流와 같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동아시아 해역의 바람은 계절에 따라 일정한 方向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발해인들은 뛰어난 航海術과 造船術을 바탕으로 일본으로 갈 때는 늦가을부터 초봄에 걸쳐 부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이용했고, 귀국할 때는 주로 늦봄부터 여름에 걸쳐 부는 남서풍 계열을 이용²⁵⁾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동해 횡단은 고도화된 천문항법이 필수인데, 이는 발해 사신들 중 항해시 천문항법을 이용해 사신들을 안내하는 天文生이라는 천문관측자가 있어서 동해 횡단이 가능했을 것이며 발해 사신들의 일본 파견이 수월했을 것이다. 실제 발해의 中臺省에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인 中臺省牒에는 841년에 파견된 105명의 공식 사절단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大使 賀福延을 필두로 副使, 判官, 記錄官, 通譯, 史官, '天文生', 大首領 등이 있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²⁶⁾

또한 발해 사신들의 일본 도착 시기와 지점²⁷⁾을 보면(<표 1> 참조), 전기에는 10월 이전으로 도착 지점은 대부분 동북지방인 出羽인데 반하여, 후기에는 12월과 1월로 도착지점도 주로 남쪽 山陰 지방인 隱岐, 出雲, 但馬, 伯耆, 若狹, 長門 등지로서, 항해거리가 훨씬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점차 발해 사신의 도착지가 일본의 首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은 주목해 볼만한 점이다.

III. 遣日本渤海使의 交流 品目を 통해 본 服飾

727년부터 시작된 200여년 동안의 34차례 사신 교류를 통해 나타난 의류 목록은 다양하다.

먼저 727년(1차)²⁸⁾, 739년(2차)²⁹⁾, 827년(28차)³⁰⁾, 876년(29차), 920년(34차) 총 5회에 걸쳐서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 파견될 때 가져간 品目이 기록되어 있는데(<표 2> 참조), 짐승의 가죽과 같은 衣料가 대부분으로 수량도 그리 많지 않으며, 의류품도 피혁제품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표 2>) 발해와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류에 따라 나타난 발해 사신들의 일본 조정에 대한 증정 기록만을 제시한 것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발해 사신들은 일본인들과의 사적인 교역도 활발했을 것으로 보여져 기록에 없는 비공식적인 교역품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외에도 발해 사신이 일본조정에 증정한 수차례의 方物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2> 발해가 일본에 증정한 품목

	시기(년)	衣服品目	衣料
	渤海 ↓ 日本	727	
739			大蟲皮 7張·熊皮 7張·豹皮 6張
827			大蟲皮 7張·豹皮 6張·熊皮 7張
876		暗摸靴	
920		帶	裘

한편 발해 사신들은 일본으로부터 많고 다양한 布帛製의 衣料와 함께 여러 종류의 衣服을 받았는데(<표 3> 참조), 그 중 衣服 品目은 727년(1차-도착시), 728년(1차-귀국시), 739년(2차), 758년(4차), 759년(5차), 762년(6차), 771년(7차), 776년(9차), 786년(12차), 795년(13차), 798년(14차-도착시), 799년(14차-귀국시), 811년(16차), 842년(24차), 849년(25차), 859년(26차), 872년(28차), 883년(30차), 908년(33차), 920년(34차) 총 20회가 기록되어 있고, 종류는 時服, 當色服, 朝服, 衣服, 雜色袷衣, 蓑指衣, 御衣, 袴, 冠, 履 등이다. 그런데, 758년, 798년, 799

년에 제시된 衣料는 발해로 파견된 일본 사신(專使)이 발해 조정에 증정한 것이다.

1) 渤海 使臣이 日本에 증정한 衣類品目

① 暗摸靴

暗摸靴은 876년에 일본에 파견된 사신 楊中遠을 통해 일본 조정에 증정되었다.³¹⁾ 또한 <都氏(都良香)文集>³²⁾에 발해 사신 楊大使가 貂裘, 麝香暗摸靴을 증정한 것에 대해 掌渤海客使인 都良香가 쓴 감사의 시가 있다. 이 文集에서의 암모화는 사향노루 가죽으로 된 것이라 하였고, 기록 중의 楊大使는 876년 일본에 파견된 양중원으로 사료된다.³³⁾

<新唐書>에서는 발해의 특산물에 대한 기록³⁴⁾이 있는데, 이때 일본으로 가져간 暗摸靴의 소재인 사향노루 가죽은 사슴으로 유명한 夫餘의 특산물이었다. 이외에도 貂皮를 비롯한 여러 가죽류의 발

해 產物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향노루 가죽 외에도 발해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가죽으로 다양한 暗摸靴의 생산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渤海國志長編>에 “발해 사람들은 靴를 만드는 데 능하였다...이 靴는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암모화라는 명칭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밤에 다닐 때 알맞아서 暗摸라는 명칭이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한다.”³⁵⁾라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암모화는 발해의 대표적인 產物으로써 가죽을 소재로 하는 목이 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모화의 형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의 武士와 侍衛가 신목이 긴 검정색 靴를 신고 있어 이것이 혹시 암모화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림 1>) 또한 日本 正倉院 소장품 중에는 당의 六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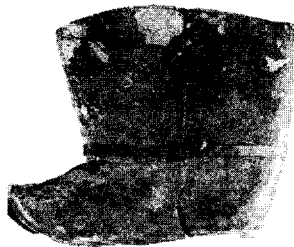
<표 3>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품목

	시기(년)	衣服 品目	衣料
	日本 ↓ 渤海	727(도착시)	時服, 衣服, 冠, 履
728(귀국시)		當色服	使臣에게 彩帛, 綾, 綿
739			渤海王: 美濃純30疋, 絹30疋, 糸150絢, 調綿300屯 已珍蒙: 美濃純20疋, 絹10疋, 糸50絢, 調綿200屯 賻物로 調布115端, 庸布60段
758			渤海王: 絹40疋, 美濃純30疋, 糸200絢, 綿300屯, 錦4疋, 兩面2疋, 纈羅4疋, 白羅10疋, 彩帛40疋, 白綿100帖 使 臣: 綿1萬屯 * 日本 專使를 통해 전달
759			渤海王: 絹30疋, 美濃純30疋, 糸200絢, 調綿300屯
763		雜色 袷衣 30疋	
771			國 王: 美濃純30疋, 絹30疋, 糸200絢, 調綿300屯
776			國 王: 絹50疋, 絁50疋, 糸200絢, 綿300屯 왕후의 喪을 조상하며 賻物: 絹20疋, 絁20疋, 綿200屯
786			常陸調絁, 相模庸綿, 陸奧稅布
795			渤海王: 絹20疋, 絁20疋, 糸100絢, 綿200屯
798			絁30疋, 絹30疋, 糸200絢, 綿300屯 * 日本 專使를 통해 전달
799		袷措衣	信物: 絁30疋, 絹30疋, 糸200絢, 綿300屯 * 日本 專使를 통해 전달
811		衣被	
842		時服	
849		時服	烏孝愼의 別貢에 대해 東純50疋, 綿400屯
859			出羽國의 絹145疋, 綿1225屯을 渤海使105인에게 분배. 李居正에게 따로 絁10疋, 綿40屯
872		時服, 朝服, 御衣	
883		冬衣服料, 御衣, 袴, 朝衣	
908		御衣, 青白椽表袍	
920		時服	

靴를 닮은 烏皮靴(<그림2>)가 있다. 육합화는 唐 群臣의 常服 착용시 신었던 신으로³⁶⁾, 발해에서도 육합화의 製法을 익히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압모화는 당 육합화의 형태에서 영향 받은 정창원의 오피화와 유사했을 것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발해 신발 (출처: 발해를 찾아서)



<그림 2> 烏皮靴
(출처: 奈良朝服飾の研究)

② 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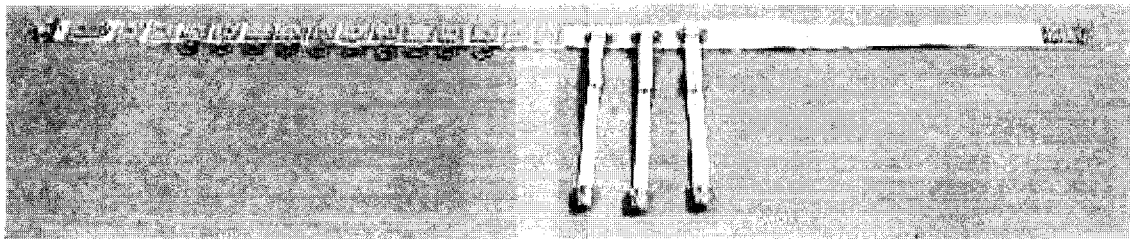
920년 裴瑒가 귀국할 때 帶를 裘와 함께 일본에 증정했다³⁷⁾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발해의 관리들이 사용했던 대는 帶는 鈔帶, 革帶 두 종류가 있었다. 鈔帶는 布나 革[가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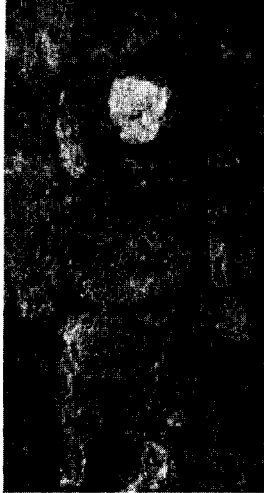
된 帶의 표면에 투조 장식된 鈔板[장식판]을 붙여 만든 금속제 띠이다. 대의 끝에는 鉸具 즉 帶鉤가 붙어있는데, 帶鉤란 혁대의 버클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帶 머리의 고리에 갈고리를 걸어 띠를 고정시켜 착용하게 된다.³⁸⁾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 러시아의 연해주, 북한의 함경도 등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보았을 때, 당시 발해 지역에서 출토된 鈔帶는 거의가 가죽에 금동, 청동, 철 등의 鈔板을 붙여 제작한 것으로써, 길림성 화룡현 하남둔의 과대(<그림 3>)에서도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 正倉院 北倉에는 斑犀假鼠皮御帶라는 帶가 있는데, 과관의 소재는 斑犀(일록무늬 무소의 角)로 금속제는 아니지만 과대와 형태가 유사한 것이 있다. <延喜曆正式>에 따르면, 반서의 대는 5위 이상의 관인이 사용하던 것이었다.³⁹⁾

革帶는 西古城子 부근에서 발굴된 貞孝公主墓 壁畫 인물⁴⁰⁾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團領에 帶를 허리에 두르고 포를 blousing 시킨 착장 형태가 모든 인물에서 나타난다.<그림 4> 혁대는 과대의 형식과 많이 유사하기는 하나 소재에 있어서 간소하고 가늘고 긴 구성을 보이고 있다. 발해의 혁대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는 일본 正倉院 南倉에 革帶가 있는데, 길이는 125~170cm, 폭은 2.6~3.2cm 정도이고 黑漆한 가죽을 봉제하여 金銅이나 銅을 사용한 巡方, 丸革内, 鉞尾를 부품으로 이용하였고, 혁대는 길어서 매고 남은 부분을 뒤로 돌려서 대 사이에 끼웠다⁴¹⁾.<그림 5> 이러한 帶의 착장 모습은 聖德太子 像(<그림 6>)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발해 사신들이 가져간 대는 외교적인 절차에 따른 공식방문이었기 때문에 간소한 구성의



<그림 3> 鈔帶(출처: 발해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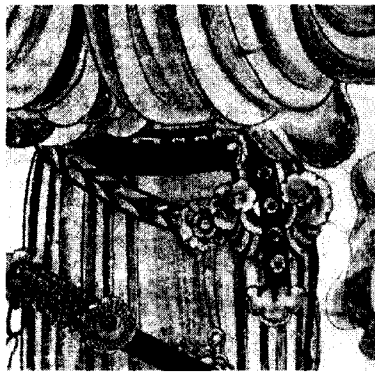
<그림 4> 시중
(출처: 발해를 찾아서)

하자 일본 조정에서 存問使를 파견하여 時服을 내렸고, 842년⁴³⁾ 正6位上 山田宿祢文雄을 통해 시복을 내렸다. 또 849년⁴⁴⁾에는 領客使 등의 인도 하에 발해 사신 王文矩 등이 入京하자 시복을 내렸고, 872년⁴⁵⁾에는 正5位下 行右馬頭在原朝臣業平은 鴻臚館으로 가서 발해 사신들의 노고를 기리며 시복을 내렸으며, 920년⁴⁶⁾에는 越前國에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 사신에게 시복을 내렸다.

時服은 사계절 중 그 계절에 맞는 옷⁴⁷⁾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해 사신은 총 5차례(727년, 842년, 849년, 872년, 920년)에 걸쳐 받음으로써, 다른 품목에 비해 자주 사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祿令凡皇親條에서 “1년에 13회 이상 시복의 의료를 제공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사



<그림 5> 革帶(출처: 正倉院展)



<그림 6> 聖德太子像(부분)
(출처: 日本的美術)

여되었음⁴⁸⁾을 적고 있다. 발해 사신들이 시복을 받은 것은 842년은 4월, 849년은 2월, 872년은 5월, 883년은 2월, 920년은 3월로서, 당시 기록이 음력을 기준했음을 감안하면 時服을 받은 시기는 초봄이나 초여름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시복도 그 시기에 맞는 것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시복은 入京을 前後하여 사신들에게 사여되고 있으므로 공식 방문 절차 중 초반기에 입혀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해 사신들이 장기간의 항해를 거쳐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발 시기에 입었던 의복이 계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착 시기에 맞는 계절 의복을 입도록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복은 여러 官服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형태는 唐의 영향을 받아 일반화된 闕領이었을 것이다.

革帶 보다는 소재와 구성에 있어 격식을 갖춘 鈿帶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확신하기는 어렵다.

② 當色服

728년 정월에 高齊德 등 8인의 발해사에게 正6位上과 함께 當色服을 사여하였고, 이어서 5위 이상의 高齊德 등에게 연회를 베풀었다.⁴⁹⁾

2) 渤海 使臣이 日本에서 받은 衣類 品目

① 時服

727년⁴²⁾ 발해 首領 高齊德 등이 出羽國에 도착

當色은 계급에 따라 정해진 염색⁵⁰⁾을 의미하는 것인 즉, 當色服은 계급에 따라 색깔을 맞추어 수여한 의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해 사신이 받은 官位와 당시(728년, 聖武天皇 4년) 일본 服制를 연계시킨다면 계급별 색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元正天皇 養老 2년(718)에 제정된 의복령을 大寶令(710)에서 언급된 새로운 官位制(1位~初位)와 연계하여 보면 <표4>와 같다.

일본 조정으로부터 정6位上의 위계를 받은 발해 사신 8인은 당색복을 받았으며 그 중 高齊德 등은 5위 이상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들이 받은 당색복은 深綠色 이상의 官服으로 사료된다.

<표 4> 대보령 관위제(710)와 양로령(718)

大寶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초위
養老令	深紫	淺紫		深緋	淺緋	深綠	淺綠	深縹	淺縹
	紫			緋		綠		縹	

③ 朝服

발해사신은 872년, 883년 두 차례에 걸쳐 위계와 함께 朝服을 관위별로 차등 있게 받았다. 먼저 872년 5월⁵¹⁾ 大使 楊成規는 종3위, 副使 李興晟은 종4위하, 判官 李周慶, 賀王眞은 정5위하, 錄事 高福成, 高觀 李孝信은 종5위상, 品官 이하의 首領 등과 天文生 이상도 각각 위계를 받았고, 883년 5월⁵²⁾ 大使 裴顯은 종3위, 副使 高周封은 정4위하, 判官과 錄事는 5위를, 그 다음 6위 이하는 등급을 차등 있게 받았고, 그 위계에 따라 朝服을 받고 퇴출하여 옷을 갈아입고(本國(渤海)의 옷을 벗고 朝服을 입은 후) 재입실하였다.

朝服은 천황 이하 관위가 있는 신하가 평상시 공무에 종사할 때 착용하는 공복으로 조정에 나갈 때 입는 관복을 의미하는데, 朝服과 883년에 기록된 朝衣는 같은 의미로 사료된다.⁵³⁾ 또한 禮服이 없는 6위 이하의 관리는 의식 때 이 의복으로 참가하였는데⁵⁴⁾, 文·武官 初位 이상인 자가 매월 1일에 특별히 조정에서 조회한다는 명을 받았을 때도 조복을 입었다.⁵⁵⁾

文官의 朝服 制度는 養老 2년(718)에 大寶令

(710)이 改修된 것으로, 천황 이하 諸臣 5위 이상이 皂羅頭巾, 禮服과 같은 색의 衣, 白袴, 牙笏, 金銀裝腰帶, 白襪, 烏皮履, 袋⁵⁶⁾를, 6위 이하 初位 이상이 皂縵頭巾, 衣, 白袴, 木笏, 烏油腰帶, 白襪, 烏皮履로 구성되어 있다.⁵⁷⁾

冠으로 썼던 頭巾은 5위 이상이 흑색의 羅, 6위 이하 초위 이상은 흑색의 縵(무늬없는 평직의 견)을 사용하여 주머니 모양(袋狀)으로 만들어졌는데, 끈을 아래턱에 묶어 고정시켰고, 後頭部의 脚은 밑에 길게 늘어뜨렸다.⁵⁸⁾

衣는 盤領의 有襪衣(袍)로 筒袖이고, 색상은 예복과 같은 색을 사용했는데, 이는 양로령의 제에 따른 것으로 1위는 深紫衣, 2위~3위는 淺紫衣, 4

위는 深緋衣, 5위는 淺緋衣, 6위는 深綠衣, 7위는 淺綠衣, 8위는 深縹衣, 초위는 淺縹衣이다.<표 4> 참조) 이러한 紫·緋·綠·縹(靑)의 四色公服制度는 바로 唐의 제도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복의 재료에 대해 <續日本紀>에 따르면, “靈龜 2년(716) 10월에 內外諸司의 관리는 얇은 紗의 조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비록 규제가 있기는 했으나 얇은 紗가 위계에 관계 없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얇은 옷감의 조복에 대해 弘仁 5년(814) 閏 7월에 “聽內外諸司人着薄朝服”과 같이 착용금지령이 해제되었는데, 이는 그러한 옷감의 요구가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令集解>(貞觀年間, 859~875) 武官 朝服條에는 “六位以下 聽用四窠以下及小綾”이라 하여, 6위 이하도 작은 문양의 綾을 착용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그러나, <延喜式>(927~967)에 따르면, “凡綾者 聽用五位以上朝服 六位以下不得服用”이라 하여 綾은 5위 이상의 조복에 사용이 허락되었고, 6위 이하는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下衣는 白袴이고, 腰帶는 일반적으로 革帶를 말

하는 것으로⁶⁰), 5위 이상은 金銀裝을, 6위 이하는 烏油(: 흑칠한 것)를 사용한다. 襪은 白色, 履는 烏皮(: 흑색의 가죽)로 하였으며, 笏은 손에 들고 있는데, 5위 이상은 牙笏, 6위 이하는 木笏이었다.⁶¹

발해 사신 중 大使 이하 錄事 이상은 모두 5위 이상의 위계를 받았으므로 白羅頭巾, 衣, 白袴, 牙笏, 金銀裝腰帶, 白襪, 烏皮履를 받았을 것이고, 위계에 따라 衣의 색상만 차이가 있어서 827년에 종3위 楊成規는 淺紫, 종4위하 李興晨은 深緋, 정5위하 李周慶, 賀正眞과 종5위상 高福成, 李孝信은 淺緋를, 883년에 종3위 裴頌은 淺紫, 정4위하 高周封은 深緋, 5위 判官과 錄事는 淺緋의 衣를 차등 있게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복의 소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얇은 紗나 작은 문양의 綾이 사용되었을 것이나 발해 사신들이 조복을 받은 시기는 872년, 883년 음력 5월의 초여름이었을 것이므로 계절에 맞는 紗가 사용되었다고 사료된다.

④ 衣服

衣服은 727년, 811년, 883년, 908년 기록에 나타나는데, 727년⁶²에는 高齊德 등이 入京한 후에 받았고, 811년⁶³에는 遣渤海國 送使 林宿祿東人에 의해 衣被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衣被는 의복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⁶⁴으로 생각된다. 의복의 의미에 대해 <穴記>에서는 “袍與衣不見其別也”⁶⁵라 하였으므로, 본 연구자는 ‘衣(衣服)’는 ‘袍’를 의미한다는 전제를 두고자 한다.

정창원의 袍는 일반적으로 盤領, 筒袖, 左衽으로 나타나고 있고, 포와 소매의 길이는 체격이 큰 남자의 신체를 모두 덮도록 크다.⁶⁶

이 시기의 포는 재봉방법에 따라 單, 袷, 綿入으로 구별된다. 재료로 單袍는 布나 絁, 袷袍는 綾이나 絁가 사용되었으나 대체로 絁製가 많았다. 綿[솜]의 명칭은 調綿·庸綿으로 구별되는데, 布制보다는 絁製의 袍에 넣는 경우가 많았으며 袍 한 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면은 1屯⁶⁷~3屯이나 2屯(약 448g)이 일반적으로 쓰여졌다.⁶⁸ 이를 통해 883년⁶⁹에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冬衣服料는 袍 안에 넣기 위한 솜[綿]과 걸감으로 쓰일 絁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해 사신들은 727년, 811년, 883년에 衣服을 일본 조정으로부터 받았다. 형태는 盤領, 筒袖, 左衽으로, 받은 시기에 따라 소재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727년 음력 12월과 883년에 음력 2월에 받았다는 의복은 겨울용 소재인 絁製나 布製에 솜[綿]을 넣은 겹포이고, 811년에는 음력 4월에 받은 것은 솜이 없는 絁製나 綾製의 겹포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908년에는 裴璆의 別貢에 대한 답례로 일본 조정에서 靑白橡表袍를 전달했는데, 靑白橡은 平安時代의 금지색이었던 靑色 계통의 색상으로, 다량의 예안과 紫草를 염료로 하였는데, 나라시대의 黃橡을 계승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다.⁷⁰ 따라서 이처럼 당시의 금지색이었을 만큼 귀중한 색상의 포를 받았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의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⑤ 雜色袷衣

763년⁷¹에 太師藤原惠美朝臣押勝이 高麗客(발해사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사신을 파견해 발해 사신들에게 雜色袷衣 30櫃를 전했다.

袷衣는 솜을 두지 않은 겹옷⁷²을 말하는데, <和名抄>에 따르면, “袷衣 文選秋興賦云御袷衣...李善曰袷衣無絮也”라 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雜色은 當色처럼 위계별로 뚜렷하게 제정된 색 이외의 색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763년의 잡색겹의를 받은 渤海使는 762년에 파견된 발해 사신인 大使 王新福 등으로, 이들은 귀국에 앞서 참석한 연회에서 일본 조정으로부터 잡색겹의를 전해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에 30櫃이라는 많은 양의 의복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서도 다른 官服 보다는 격이 높은 의복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에 있어 겹의는 솜을 두지 않은 겹옷이므로 衣服과 같이 布製나 絁製를 사용했을 것이고, 색상은 다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⑥ 綦袷衣

799년⁷³에는 大極殿에서 일본 群臣들과 발해 사신들이 함께 연회를 베풀고 蕃客(발해사신) 이상에게 綦袷衣를 사여했으며 발해 사신들은 나란히 서

서 踏歌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蓑措衣의 ‘蓑’은 ‘榛’과 통용되는 것으로⁷⁴⁾, ‘榛’은 ‘개암나무(はしばみ)’나 ‘오리나무(はんの木)’를 말하며⁷⁵⁾, 이들 나무의 열매나 樹皮가 염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오리나무의 수꽃[雄花]은 黑褐紫色, 암꽃[雌花]은 紅紫色, 樹皮는 紫褐色을 띠고 있어서⁷⁶⁾, 색상은 茶 계통⁷⁷⁾의 갈색, 흑색⁷⁸⁾, 자색의 다양한 색상을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蓑措衣의 ‘措’는 ‘摺’으로도 볼 수 있는데⁷⁹⁾, 이는 <內裏式>(弘仁: 12년, 8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蓑’을 ‘榛’으로, ‘措’를 ‘摺’으로 대체하면, 기록에 나타난 ‘蓑措衣’와 ‘榛摺衣’는 같은 품목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摺衣(すりごろも)라는 것은 摺り(すり)라는 기법을 이용한 染色衣로서, 이는 문양을 陽刻한 판에 염료를 바르고 판 사이에 옷감을 넣어 문양을 찍는 방법인 바, 이는 색소가 잘 염착되지 않고 포백의 표면에만 부착되게 되므로 색이 바래어지기 쉬웠다.⁸⁰⁾

문헌에는 ‘蓑措衣’와 ‘榛摺衣’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天武天皇 15年(701) 정월, 大極殿에서의 연회식에서 천황의 질문에 정답을 맞춘 高市皇子에게 칭찬의 뜻으로 준 방대한 양의 下賜品⁸¹⁾ 필두에 ‘蓑措衣’가 있는 것을 보면, 이는 함께 기록된 高價의 錦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桓武天皇 延暦 18년(799) 정월 16일 대극전 연회 시에, 발해 사신은 蓑措衣를 받고 답가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踏歌는 중국에서 隋代 경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정월의 민간 행사에서 上元의 밤이나 觀燈會에서 발을 구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는데, 일본에서는 持統天皇 7년(693)에 시작되었다. 일본의 踏歌式은 정월 16일에 외국 사신이나 일본 관인들이 천황이 베푸는 연회 자리에서 물품을 사여받은 후 답가를 부르거나 답가를 부른 후 물품을 사여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⁸²⁾

그리고, 榛摺衣는 <內裏式> 중의 <儀式>에 따르면, 大嘗祭의 전날 參議 이상이 宮內省에서 齋服을 갈아 입었는데, 神祇官의 長官 이하, 卜占長, 宮主, 巫部, 彈琴 등의 주요 祭祀者 13명은 榛藍摺錦

袍를, 나머지 제사자 137명은 靑摺布衫을 입었다. 천황이 즉위하는 중요한 의식에서도 의식을 치르는 제사자들은 이 榛摺衣를 착용하였다. 鎮魂祭는 매년 11월의 寅日에 행해진 의식으로 祖靈의 진혼의 祭式에 따르면, 제사자의 주요 구성원이 榛摺衣를 착용하였다⁸³⁾는 기록이 있어 榛摺衣’는 大嘗祭와 鎮魂祭의 祭服으로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의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榛摺衣, 蓑措衣는 榛에서 추출한 염료를 이용한 摺衣로서, 천황 하사품의 필두에 있거나 祭服으로도 사용되는 신성한 의미와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의복으로, 발해 사신이 이를 받았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그들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⑦ 御衣

御衣는 872년⁸⁴⁾에는 大使 楊成規가 掌客使를 따라가서 民部少甫 겸 東宮學士인 從5位下 橋朝臣 廣相을 통해 曲宴을 베풀고, 遣兵部少輔 從5位下 椋行下野權介高階真人令範은 御衣를 내렸다. 883년⁸⁵⁾에는 2차례에 걸쳐 전달되었는데, 3월 8일에는 存問使 겸 領客使인 少外記大藏善行 式部少丞高階 茂範 등이 파견되어 奉參시 內裏에서 御衣 일습을 전달하였고, 5월 8일에는 從5位下 行右馬助 藤原朝臣恒興을 통해 御衣 일습을 大使 裴頌에게 전달하였고, 908년⁸⁶⁾에는 蕃客(발해사신)을 위해 朝集堂에서 잔치를 베풀고 (渤海) 國王 등에게 줄 물건을 전달하였으며, 右近少將 平元方殊給을 통해 大使 裴璆에게 御衣 일습을 전달하였다.

어의는 ‘天子의 것’ 혹은 ‘衣의 경칭’⁸⁷⁾을 의미한다. 그런데, ‘御’라는 단어가 쓰여진 ‘御所’는 첫째, 天皇의 거처(궁궐), 둘째, 上皇·皇太后·親王 등의 거처, 셋째, 將軍·大臣 등의 거처⁸⁸⁾의 여러 의미가 있는데, ‘御’라는 것은 왕실에 대한 의미 외에도 일반 관리에 대한 의미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日本書紀> 天武天皇朝 기록에 나타난 하사품 중 “阜御衣...”나 “蓑措御衣三具...”와 <萬葉集>의 기록 중에 “黑き御衣...”를 통해 어의의 일부 색상은 흑색이나 茶 계통의 갈색, 자색 계통의 색상으로 염색되어졌다고 사료된다.

발해 사신에게 전달된 御衣는 官服의 의미를 지

니는 것으로, 천황을 대신해 5위 위계의 관리에 의해 大使에게 --囊으로 전달되었다.

⑧ 袴

883년⁸⁹⁾에 存問使 겸 領客使인 少外記大藏善行式部少丞高階茂範 등이 파견되어 奉參시 內裏에서 발해 사신에게 御衣와 함께 袴 일습을 전달하였다.

5, 6세기 古墳時代의 禪은 크게 여유가 있는 형태로 무릎 밑에 끈을 묶은 형태이나 7, 8세기 飛鳥·奈良時代의 袴는 폭을 좁게 만들었다.⁹⁰⁾ 奈良時代의 袴는 통형의 表袴와 고의 부리에 끈을 한 줄로 길게 잇고 그것을 묶은 모양의 括緒禪⁹¹⁾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나라시대의 表袴는 平安時代로 계승되었다. 평안시대의 표고는 地文에 浮文과 岡文이 있고, 霰地の 窠文은 상급자, 浮文은 幼年者가 사용했다.⁹²⁾

한편 정창원에 남아있는 袴의 형식은 開袴式, 閉袴式으로 크게 구별되고, 다시 개고식은 가랑이 부위에 사각형 襠의 유무에 따라 분리되고, 봉제 방식에 있어 袍와 마찬가지로 單, 袷, 縮[綿]을 넣은 세 종류가 있다.⁹³⁾ 1겹으로 된 單袴는 絁와 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夏節用이었고, 2겹의 袷袴는 表裏의 布나 絁가 단고의 2배로 되어 있어, 이는 春秋用이었을 것이며, 縮袴는 안에 縮[縮]을 넣은 것으로 冬節用으로 사용한 것이다.⁹⁴⁾ 이는 이전부터 착용되어졌던 형식과 새롭게 들어온 唐風의 형식이 혼합되어진 것이다.⁹⁵⁾

883년에 발해 사신이 받은 袴는 나라시대에서 계승된 통이 넓은 表袴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地文에 浮文과 岡文, 霰地の 窠文과 같은 상급자의 소재가 쓰여진 袴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⑨ 冠과 履

727년 9월⁹⁶⁾에 出羽에 도착했던 발해 사신 高齊德 등 8인이 그 해 12월 入京하자 存問使는 이들에게 衣服·冠·履를 일습으로 전달했다.

日本은 685년에 唐의 幘頭를 수용하여 이를 漆紗冠이라 하였는데, 奈良時代의 칠사관은 포백제의 자루모양[袋] 巾을 머리에 쓰고, 양 옆 2개의 帶를

상투 앞으로 묶어 올려 고정시켰는데, 이 끈을 上緒라 하고, 뒤로 부드럽게 늘어져 있는 2개의 帶는 燕尾라 하였다. 幘體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부드러운 형상의 2층을 이루고 있다.⁹⁷⁾ 당시의 漆紗冠은 聖德太子 畫像(<그림 7>)에서 볼 수 있는데, 형태는 唐 초기 형태의 幘頭인 四帶巾의 형상으로 後脚은 卷脚의 양식이다.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부터 冠을 받은 시기는 727년으로, 이때 일본은 이미 唐으로부터 幘頭 형식의 관모를 烏羅頭巾이나 烏縵頭巾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⁹⁸⁾ 착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 발해 사신이 의관 일습으로 받은 관은 唐 幘頭 형식과 유사한 漆紗冠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해 사신이 받은 履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창원 소장 당시 革履(<그림 8>)를 참고로 유추해 보면, 검은 피혁제로 만들어졌고 淺沓 형식에 발끝은 휘어져 산 모양⁹⁹⁾이었을 것으로, 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신었던 신발의 형태로 사료된다.



<그림 7> 聖德太子像(부분)
(출처: 日本の美術)



<그림 8> 革履(출처: 奈良朝服飾の研究)

IV. 요약 및 결론

渤海는 古代 日本과 727년부터 920년까지의 시기 동안 발해에서는 34회, 일본에서는 13회의 사신 왕래가 있었었는데, <續日本紀>, <日本後紀>, <續日本後紀>, <日本三代實錄>, <類聚國史>, <扶桑略記> 등의 일본 사료에서는 이러한 교류 관계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물품 목록이 언급되고 있다.

그 중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 파견될 때 가져간 衣類 品目은 876년에는 暗摸靴, 920년에는 帶이다. 그리고, 발해 사신들이 귀국시 일본에서 받은 衣類 品目은 727년에는 時服, 衣服, 冠, 履, 728년에는 當色服, 763년에는 雜色袷衣, 799년에는 綦措衣, 811년에는 衣被, 842년에는 時服, 849년에는 時服, 872년에는 時服, 朝服, 御衣, 883년에는 冬衣服料, 御衣, 袴, 朝衣, 908년에는 御衣, 靑白椽表袍, 920년에 時服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의류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고찰은 아래와 같다.

1. 暗摸靴은 貂皮나 사향노루 가죽으로 만들었던 靴로써, 이는 발해 사신이 일본에 증정한 발해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보인다.

2. 帶는 鈔帶 혹은 革帶로 추정된다. 당시 綳대는 鈔板, 鉸具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식판인 綳대의 소재에 따라 계급이 구분되었을 것이다. 綳대는 綳대와 구성이 유사하나 소재가 간소하고 가늘고 길이가 긴 형태의 대로써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의 인물들도 이 綳대를 채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발해 사신들의 일본 파견은 외교적인 공식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일본에 증정한 대는 간소한 구성의 革帶 보다는 소재와 구성에 있어 격식을 갖춘 鈔帶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3. 時服은 계절에 맞는 옷을 의미한다. 기록에 따르면 발해 사신은 842년은 4월, 849년은 2월, 872년은 5월, 883년 2월, 920년은 3월에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초봄이나 초여름 정도의 시기로서 시복도 그 계절에 맞는 것을 받았을 것이다.

4. 當色服은 계급에 따라 의복의 색을 맞춰 입는 것으로, 당색복을 받은 728년 발해 사신들은 일본

으로부터 正6位上 이상의 위계를 받았으므로 이때의 당색복은 深綠色 이상의 官服이었을 것이다.

5. 朝服은 천황 이하 모든 신하가 평상시 공무에 종사할 때 착용하는 공복으로 조정에 나갈 때 입는 관복이다. 발해사신은 827년, 883년 두 차례에 걸쳐 위계와 함께 조복을 관위 별로 차등 있게 받았다. 당시 발해의 大使 이하 錄事 이상의 사신들은 모두 5위 이상의 위계를 받았으므로 文官 중 5위 이상이 착용했던 皂羅頭巾, 衣, 白袴, 牙笏, 金銀裝腰帶, 白襪, 烏皮履를 받았을 것이고, 衣의 색상은 위계에 따른 당색복에 준하여 차등이 있었을 것이다.

6. 衣服은 ‘袍’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창원의 袍는 일반적으로 盤領, 筒袖, 左衽으로 나타나고 있고, 길이와 소매는 길다. 포는 재봉방법에 따라 한 겹인 單袍, 두 겹인 袷袍, 솜을 넣은 綿袍로 구별되고, 소재는 絁, 布製, 綿[솜]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絁製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7. 雜色袷衣는 當色服처럼 위계별로 색상이 정해진 것이 아닌 솜을 두지 않은 두 겹의 옷을 의미한다.

8. 綦措衣는 ‘榛措衣’와 상통하는 것으로 措衣는 摺(すり)를 이용한 染色衣를 말하는 것이다. 摺(すり)는 색을 칠하고 문양을 넣은 판 사이에 접은 옷감을 넣어 문양을 찍는 방법인데, 綦措衣·榛措衣는 榛의 열매나 樹皮에서 나온 黑褐紫色, 紅紫色, 紫褐色을 염료로 한 措衣이다. 또한 綦措衣는 천황 하사품의 필두에 있거나 祭服으로도 사용되는 신성한 의미의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의복이다.

9. 御衣는 관리의 의복으로, 천황의 하사품의 기록을 통해 어의의 일부 색상은 흑색이나 茶 계통의 색상을 띠었을 것으로 본다.

10. 袴의 형식은 開袴式, 閉袴式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개고식은 가랑이 부위에 사각형 襠의 유무에 따라 분리된다. 또한 봉재 방식에 있어 袍와 마찬가지로 單, 袷, 綿[솜]을 넣은 세 종류가 있다.

11. 奈良時代の 日本은 685년에 唐의 幘頭를 수용하여 이를 漆紗冠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록에 언급된 冠은 幘頭 양식과 유사한 漆紗冠으로 사료되고, 이는 朝服의 冠인 皂羅頭巾이나 皂纒頭巾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12. 履는 검은 피혁제로 만든 것으로, 淺沓 형식에 발끝은 휘어져 산 모양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727년부터 939년에 걸친 渤海(東丹國 포함)와 古代 日本의 교류를 통해 문헌에 나타난 衣類 品目을 명칭에 따라 정리해보았다.

발해 사신들이 일본에 증정한 품목은 주로 가죽 제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발해의 産物 중 대표적인 것이 가죽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류 기록에서는 5회만이 기록되어 있어 활발한 교류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하나 일본 문헌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 품목이 제시되지 않은 수차례의 方物 기록이 있고, 공식적인 교류 외에 발해 사신들이 머물렀던 客官인 鴻臚館 부근에서 일본 조정의 허락을 받아 비공식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때 다량의 품목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본에서 발해 사신들은 주로 5位以上の 고위 계급을 받았고, 褰袴衣를 비롯한 의복 품목 또한 이에 준한 가치가 높은 품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 당시 발해 사신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시기를 상정해 보았을 때, 이 글에서 언급된 여러 품목들은 奈良時代의 복식으로 보여지고, 당시 나라시대는 唐의 文化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기였으므로 이 품목들은 당의 복식과도 유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발해 또한 文王代부터 적극적으로었던 당의 문화 수용으로 인해 발해 복식 또한 당의 복식과 유사했음을 정효공주묘 벽화 인물상 등의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류를 통한 발해 복식은 발해와 함께 당의 복식을 수용했던 나라시대 의류 품목과 유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의 명칭만을 가지고 문헌에 의존하여 형태를 유추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두고자 하며, 추후의 연구에서 그 점을 재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송기호 (1995). 발해 정치사 연구. 일조각, p.241 참조.
- 2) 渤海가 존속하였던 지역은 현재 중국의 東北三省, 러시아의 沿海州, 북한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각 국가의 '발해사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自國 중심의 해석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발해의 주민 구성 문제'도 쟁점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는 발해가 高句麗를 계승한 왕조인지 靺鞨族의 왕조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해는 발해를 말갈국으로 보는 것으로, 말갈족의 조상인 肅慎, 挹婁, 勿吉族에 말갈족에 이르러 최초의 국가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견해는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인들로 구성된 이원적 국가로 보는 것이고, 북한의 견해는 발해를 대부분의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국가로 보는 견해로, 고구려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았었고, 발해가 고구려 영역을 대부분 차지하였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 한규철 (1998. 9). 현대 발해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4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고구려 연구회, pp. 15~16.
- 3) 발해는 고구려 유민의 건국지였고, 건국 시기에 고구려의 선진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留學生, 僧侶 등을 통해 唐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 김종혁 (1998).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조사 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 발해사 연구논문집, 2, p. 235.
- 4) 新羅 元聖王 6년(790)에 “-吉浪 伯魚를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기록(〈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 6年 3月 : 春三月 以 -吉浪伯魚使北國)과 憲德王 4년(812)에 “綴浪 崇正을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기록(〈三國史記〉 卷19 新羅本紀 10 憲德王 4年 9月 : 秋九月 遣綴浪崇正使北國)을 통해 당시 新羅는 渤海를 “北國”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참조 : 下中 弘 編集 (1993). 日本史大事典. 東京: 平凡社.
 - 〈續日本紀〉 : 〈日本書紀〉에 이어 8세기 후반 淳仁天皇朝와 光仁天皇朝에 걸쳐 편찬된 역사서. 이는 697년(文武 원년) 8월 文武天皇 즉위부터 桓武天皇朝 791년(延曆 10) 12월까지 9代 95년간의 역사가 편년체의 한문으로 기술된 것으로, 797년(延曆 16) 中料都雄에 의해 편찬이 완료되었다. 〈속일본기〉는 국가 성립의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데 편찬의도가 있는데, 〈일본후기〉에 비해 역대 천황의 입장이 강하게 담겨 있다.(참조: 3권, p. 1317)

- 〈日本後紀〉: 792년(延曆 11)부터 833년(天長 10)까지 桓武·平城·嵯峨·淳和 4명의 천황, 43년간의 일이 기록되었고, 仁明天皇 840년(承和 7) 藤原緒嗣에 의해 완성되었다.(참조: 5권, p. 573)
- 〈續日本後紀〉: 仁明天皇 1대 833년(天長 10)부터 850년(嘉祥 3)에 이르는 18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었다. 文德天皇의 명으로 藤原良房·春澄善繩가 편찬하여 清和天皇 869년(貞觀 11)에 완성되었다. 이전 國史의 외관을 사용하면서도 천황 1대를 기록한 실록의 입장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참조: 3권, p. 1318)
- 〈日本三代實錄〉: 〈文德天皇實錄〉 이후 清和·陽成·光孝 3명의 천황대 858년(天安 2)부터 887년(仁和 3)까지 30년간의 일을 기록했다. 宇多天皇의 명으로 편찬되었고, 醍醐天皇 901년((延喜 1)에 藤原時平에 의해 완성되었다.(참조: 5권, p. 585)
- 〈類聚國史〉: 중국에서 유행했던 〈藝文類聚〉〈初學記〉 등의 책을 모방한 편년체의 역사서. 〈日本書紀〉이하 〈文德實錄〉에 이르는 五國史의 기사를 神祇·帝王·後宮·人·歲時·政理 등 부분별로 분류하여 고쳐서 편찬되었다. 892년(寬平 4)에 菅原道眞에 의해 완성되었다.(참조: 6권, p. 1195)
- 〈扶桑略記〉: 平安末期의 편년체 역사서. 기사的大부분은 불교에 관계된 것으로 불교사와 후세까지 중시되었던 〈水鏡〉〈愚管抄〉 등 鎌倉時代의 역사에 자주 인용되었고, 영향을 미쳤다. 〈부상략기〉는 學僧인 皇円에 의해 1094년(嘉保 원년)에 완성되었다.(참조: 5권, p. 1283)
- 6) 한규철 (1995).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pp. 203~204. ; 최재석 (1993).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관계. 일지사, p. 342. ; 上田 雄 著, 최봉렬 譯 (1994). 발해의 수수께끼. 교보문고, pp. 213~220. ;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부록.
- 7) 김민지 (2000). 渤海服飾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79~221.
- 8)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대 출판사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수학사. ; 유희경·김문자 (2001).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 金玟志 (1993). 渤海(698~926)의 服飾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지 (1994).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2)-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을 중심으로-. 복식, 22호; 金文子 (1997). 渤海服飾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논문집 ; 전현실 (1999). 渤海와 新羅의 服飾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민지·이순원 (2000). 石國墓 出土 渤海 三彩 女俑의 복식연구. 복식, 50(3) ; 김민지 (2000). 渤海服飾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최재석. 위의 책.
- 10) 李成市 著, 김창석 譯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 11) 石井正敏 (1974). 初期日渤交渉における一問題-新羅征討計劃中止と關連のめぐって, 史學論集 對外關係と政治文化 1. 森克己博士古稀記念會. 東京: 吉川弘文館.
- 12) 黑板勝美 (1981). 類聚國史, 卷193 殊俗 渤海 上(聖武~桓武), 卷194 殊俗 渤海 下(嵯峨~陽成). 東京: 吉川弘文館. ; 黑板勝美 (1981). 日本三代實錄. 東京: 吉川弘文館 ; 黑板勝美 (1981). 續日本紀. 東京: 吉川弘文館. ; 黑板勝美 (1981). 續日本後紀. 東京: 吉川弘文館. ; 黑板勝美 (1965). 扶桑略記. 東京: 吉川弘文館.
- 13) 조이욱 (1994). 渤海 文王代 對新羅交涉과 南京. 동양고전연구(3).
- 14)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pp. 123~124.
- 15) 賓禮는 영접 과정을 거쳐 귀국하기까지의 의례를 통틀어 말하는데, 奈良·平安時代 의례의 典據는 唐制였다. 일본의 鴻臚館은 외국 사신의 영접 의례에서 특히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다.
- 이성시 저, 김창석 역 (1999). 위의 책, p. 123.
- 16) 〈日本三代實錄〉卷34 陽成天皇 元慶 七年: 春正月戊辰朔 式部少兼高階真人茂範 爲存問渤海客使...三月.. 八日甲戌 存問兼領渤海客使少外記大藏善行 式部小丞高階茂範等進發...夏四月...二十八日甲子...郊外勞渤海客 領客使少外記大藏善行等引客徒入鴻臚館...五月... 二日丁卯 大使裴頌等於朝堂奉進王啓及信物...三日戊辰 天皇御豐樂殿賜宴渤海客徒 授大使文籍院少監正四品賜紫金魚袋裴頌從三位 副使正五品賜緋銀魚袋高周封正四位下 判官錄事授五位 其次叙六位已下各有等級...五日庚午...賜大使已下錄事已上續命樓...十二日丁丑 渤海使歸蕃 是日遣參議政四位下...向鴻臚館付勒書
- 17) 〈延喜式〉卷30 大藏省 蕃客來朝條
- 18) 이성시 저, 김창석 역. 위의 책, p. 123, pp. 152~153.
- 19) 酒寄雅志. 위의 책, p. 124.
- 20) 〈日本三代實錄〉卷21 : 清和天皇貞觀十四年...五月... 二十日己丑 內藏寮與渤海客 廻貨物 二十一日庚寅 聽京師人與渤海客交關 二十二日辛卯 聽諸市人與客徒私相市場 是日 官錢四十萬賜渤海使等
- 21) 이성시 저, 김창석 역. 위의 책, p. 153.
- 22) 〈類聚三代格〉卷18
- 23) 〈新唐書〉卷 219 北狄 渤海傳: 龍原東南渤海, 日本道也. 南海, 新羅道也. 鴨綠, 朝貢道也. 長嶺, 營州道也. 扶餘, 契丹道也.
- 24) 〈渤海考〉地理考: 五京 上京 龍泉府. 中京 顯德府. 東京 龍原府. 南京 南海府. 西京 鴨綠府. 十五府 龍泉府 肅慎古地. 顯德府 肅慎古地在龍泉府南. 龍原府 謙

- 貂古地赤日柵城府爲日本道。南海府 沃沮古地爲新羅道。鴨綠府 高句麗古地爲朝貢道。
- 25) 윤명철 (1998, 9). 渤海의 海洋活動 能力에 대한 檢討. 제4회 고구려 국제학대회 발표논문집, 고구려 연구회, pp. 367~409.
- 26) 역사스페셜, 발해는 왜 동해를 건넜는가. KBS, 1998, 11. 7 방영.
- 27) 윤명철. 위의 책, pp. 370~372.
- 28) <續日本紀> 卷10 : 聖武天皇神龜五年春正月...甲寅...寧遠將軍郎將一作龍毅都尉高仁義...并附貂皮三百張奉送
- 29) <續日本紀> 卷13 : 天平十一年...十二月戊辰 渤海使已珍蒙等拜朝...并附大蟲皮羆皮七張豹皮六張人參三十斤...
- 30) <日本三代實錄> 卷4 : 貞觀十四年...五月...丁亥...檢楊成規等...其信物大虫皮七張豹皮六張熊皮七張蜜五斛
- 31) <渤海國志長編> 卷17 食貨考 : 玄錫六年(876)聘日本使楊中遠餽暗摸靴
- 32) <都氏文集> : 謝 渤海楊大使贈 貂裘麝香暗摸靴 狀 - 재인용, 上田 雄 (2002). 渤海使の研究. 東京: 明石書店, p. 839.
- 33) 일본을 방문한 사신이 楊大使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으나 발해와 일본의 사신왕래 기록과 <渤海國志長編>의 기록(각주31, 참조)을 통해 보았을 때 暗摸靴를 일본으로 가져간 楊氏 姓을 가진 大使는 楊中遠 밖에 없으므로 <都氏文集>에서 언급된 대사는 876년에 일본으로 파견된 양중원으로 짐작된다.
- 34) <唐書> 권219 列傳 제144 北狄 渤海 : 俗所貴者, 曰太白山之菟, 南海之昆布, 柵城之豉, 夫餘之鹿, 鄭頡之豕, 率賓之馬, 顯州之布, 沃州之麩, 龍州之紬, 位城之鐵, 盧城之稻, 涓沱湖之鯽, 果有九都之李, 樂游之梨.
- 35) <渤海國志長編> 卷17 食貨考 : 渤海人能製靴...此靴蓋爲革製惟暗摸靴命名之義未詳或爲夜行時所需故名暗摸
- 36) 周錫保 (中華民國 75年). 中國古代服飾史. 丹青, p. 189.
- 37) <扶桑略記> 卷24 : 醍醐延喜二十年(920)...六月...二十二日 朝綱令秦遣渤海大使裴璆書狀 客已飯鄉 卽仰所贈帶裘
- 38) 金東旭 (1985). 百濟의 服飾. 百濟文化開發研究院, p. 124.
- 39) 奈良國立博物館 (1992). 正倉院展, p. 54.
- 40) 貞孝公主는 3대 文王 대흥무(737~793)의 四女로, 기록을 통해 756년(渤海 大興 20年)에 출생하여 792년(渤海 大興 56年)에 卞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견된 묘의 내부에는 渤海人 12人이 묘사된 벽화가 있고, 묘사된 인물은 武士, 侍衛, 樂伎, 內侍, 侍從의 직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전반적으로 幘頭, 團領, 帶, 靴와 履로 나타나고 있어 唐 服飾의 구성과 유사하다.
- 41) 奈良國立博物館 (1992). 위의 책, p. 55.
- 42) <續日本紀> 卷10 : 聖武天皇神龜四年(727)九月..庚寅 渤海郡王使首領高齊德等八人 來著出羽國 遣使存問 兼賜時服
- 43) <續日本後紀> 卷11 : 仁明天皇承和九年(842)...夏四月乙丑朔 使右大使正六位上山田宿祢文雄 賜客徒時服
- 44) <續日本後紀> 卷19 : 仁明天皇嘉祥二年(849)...二月...辛亥 領客使等引 渤海國使王文矩等入京...癸丑 賜渤海客徒時服
- 45) <日本三代實錄> 卷21 : 清和天皇貞觀十四年(872)...五月...十七日丙戌 勅遣正五位下行右馬頭在原朝臣業平向鴻臚館 勞問渤海客 是日 賜客徒時服
- 46) <扶桑略記> 卷24 : 醍醐延喜二十年(920)三月二十二日 遣官使於越前國 賜渤海客時服
- 47) 諸橋轍次 (昭和 60年). 大漢和辭典(卷5). 東京: 大修館書店, p. 849, 857.
- 48) “凡皇親 年十三以上 皆給時服料...” - 재인용, 關根眞陸 (昭和 61年). 奈良朝服飾の研究 (本文編). 東京: 吉川弘文館, p. 71.
- 49) <續日本紀> 卷10 : 聖武天皇神龜五年(728)春正月...甲寅...高齊德等八人並授正六位上 賜當色服 仍宴五位已上高齊德等賜大射及雅樂寮之樂 宴訖賜有差
- 50) 諸橋轍次. 위의 책, p. 510.
- 51) <日本三代實錄> 卷21 : 清和天皇貞觀十四年(872)...五月...十九日戊子...大使已下相共拜舞 訖授大使楊成規從三位 副使李興農從四位下 判官李周慶賀王眞並正五位下 錄事高福成高觀李孝信並從五位上 品官以下并首領等授位各有等級 及天文生以上隨位階各賜朝服
- 52) <日本三代實錄> 卷43 : 陽成天皇元慶七年(883)...五月...三日戊辰 天皇御禮樂殿 賜宴渤海客徒...賜紫金魚袋褒頌從三位 副使正五品賜緋銀魚袋高周封正四位下判官錄事授五位 其次叙六位已下各有等級 隨其位階賜朝服 客徒拜舞退出 更衣而入
- 53) 諸橋轍次. 위의 책, p. 1055.
- 54) 北村哲郎 著, 이자연 譯 (1999). 日本복식사. 서울: 경춘사, p. 45.
- 55) 增田美子 (1995). 古代服飾の研究-繩文から奈良時代 -. 東京: 源流社, p. 233.
- 56) 袋(位袋)는 패용하는 것으로 袋部和 緒로 구성되는데, 服色에 따라 袋와 緒의 색이 결정되고 그 색에 따라 위계가 구별되었으나 養老 6년(722)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발해 사신들의 방문시기(872년, 883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57) 谷田闕次·小池三枝 (2000). 日本服飾史. 東京: 光生館, pp. 31~32. ; 增田美子. 위의 책, pp. 235~237.
- 58) 井筒雅風 (昭和 59年). 原色 日本服飾史. 京都: 光琳

- 社出版, p. 31.
- 59) 増田美子. 위의 책, p. 239.
- 60) 増田美子. 앞의 책, p. 239.
- 61) 谷田闕次·小池三枝. 위의 책, p. 31.
- 62) <續日本紀> 卷10 : 聖武天皇神龜四年(727)九月...丁亥...渤海郡王使高齊德等八人入京 丙申 遣使賜高齊德等衣服冠履
- 63) <日本後紀>] 卷21 : 嵯峨天皇弘仁二年(811)...四月...庚寅 寺神泉苑 右近衛府奉獻 侍臣賜衣被 是日 遣渤海國使正六位上林宿祢東人等辭見 賜衣被
- 64) 諸橋轍次. 위의 책, p. 174.
- 65) 재인용. 増田美子. 위의 책, p. 238.
- 66) 關根眞陸. 위의 책, p. 79.
- 67) 1屯 = 綿[舍] 6兩(<大漢和辭典> 권4, p. 3579), 1兩 = 37.3瓦(<大漢和辭典> 권1, p. 1066), 瓦 = g(<大漢和辭典> 권7, p. 994)이므로 2屯은 약 448g의 양이다.
- 68) 關根眞陸. 위의 책, pp. 82~91.
- 69) <日本三代實錄> 卷43 : 陽成天皇元慶七年(883)...二月...二十一日戊午...存問渤海客使大藏善行 高階茂範 並爲兼客使...二十五日壬戌 賜渤海客徒冬衣服料
- 70) 増田美子. 위의 책, p. 263.
- 71) <續日本紀> 卷24 : 淳仁天皇天平寶字七年(763)...二月丁丑 太師藤原惠美朝臣押勝設宴於高麗客 詔遣使賜以雜色袷衣三十襤
- 72) 諸橋轍次. 위의 책, p. 209; 關根眞陸. 위의 책, p. 85.
- 73) <日本後紀> 卷8 : 桓武天皇延曆十八年(779)正月...辛酉 御大極殿 宴群臣并渤海客 奏樂 賜蕃客以上綦指衣 並列庭踏歌
- 74) 増田美子. 위의 책, p. 266.
- 75) 민중서림편집부 (1998). 韓漢大字典. 민중서림, p. 2044, p. 2110.
- 76) 西田尙道 (2000). 日本の樹木. 東京: 學習研究社, p. 105.
- 77) 増田美子. 위의 책, p. 277.
- 78) 渡辺素舟 (昭和 48年). 日本服飾美術史(上). 東京: 雄山閣, p. 53.
- 79) 増田美子. 위의 책, p. 270.
- 80) 増田美子. 앞의 책, p. 265.
- 81) <類聚國史> 卷71 歲時 2 元日朝賀 : 天武天皇十五年正月壬寅朔癸卯. 御大極殿而宴於諸王卿...高市皇子被問以實對. 賜綦指御衣三具 錦袴二具 并純二十四 糸五十斤 綿百斤 布 一百端
- 82) 天武~光孝條의 내용(<類聚國史> 卷72 歲時3 踏歌) 을 보았을 때,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 83) 増田美子. 위의 책, pp. 268~271.
- 84) <日本三代實錄> 卷21 : 清和天皇貞觀十四年(872)...五月...二十四日癸巳 大使楊成規從掌客使...是日 勅遣民部少甫兼東宮學士從五位下橘朝臣廣相賜客徒曲宴遣兵部少輔從五位下兼行下野權介高階真人令範賜御衣 客主具醉 興成賦詩
- 85) <日本三代實錄> 卷43 : 陽成天皇元慶七年(883)...三月...八日甲戌 存問兼領渤海客使少外記大藏善行 式部少丞高階茂範等進發 奉參內裏辭見 賜御衣袴各一襲...八日癸酉...勅遣中使從五位下行右馬助藤原朝臣恒興 賜御衣 一襲大使褒頌 賞褒頌高才有風儀也...十二日丁丑 渤海使歸蕃
- 86) <扶桑略記> 卷23 : 醍醐延喜八年(908)...五月...十五日 饗蕃客朝集堂 并賜彼國王等物 使右近少將平元方殊 給大使褒瑒御衣 一襲
- 87) 諸橋轍次. 위의 책, p. 889.
- 88) 민중서림편집부 (2000). 옛센스 日韓辭典. 민중서림, p. 882.
- 89) <日本三代實錄> 卷43 : 陽成天皇元慶七年(883)...三月...八日甲戌 存問兼領渤海客使少外記大藏善行 式部少丞高階茂範等進發 奉參內裏辭見 賜御衣袴各一襲
- 90) 北村哲郎 (昭和 63年). 日本服飾小辭典. 東京: 原流社, p. 64.
- 91) 日野西資孝 編 (昭和 43년). 日本の美術 第26號-服飾. 東京: 至文堂, p. 24.
- 92) 日野西資孝 編. 앞의 책, p. 36.
- 93) 關根眞陸. 위의 책, p. 127.
- 94) 박춘순 (1991). 바지袴-바지形態의 地域의 特性과 變遷過程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0.
- 95) 關根眞陸. 위의 책, p. 127.
- 96) <續日本紀> 卷10 : 聖武天皇神龜四年(727)九月...庚寅 渤海郡王使首領高齊德等八人 來著出羽國 遣使存問兼賜時服 十二月...丁亥...渤海郡王使高齊德等八人入京 丙申 遣使賜高齊德等衣服冠履
- 97) 姜淳弟 (1991.7). 관모연구(1)-7C~13C 幘頭受容 이후의 韓國과 日本의 冠帽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1(1), pp. 17~19. ; 姜淳弟 (1992).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男子 便服 冠帽을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7~52. ; 姜淳弟 (1994. 12). 관모연구(2)-埴輪에 나타난 古代 日本의 冠帽을 中心으로-.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4(1), p. 81.
- 98) 太田臨一郎 (平成 元年). 日本服制史(上卷). 東京: 文化出版局, p. 82.
- 99) 이자연. 위의 책, pp. 46~47.